

급변하는 한국의 인구

저출산과 가족가치



최진호
한국인구학회 회장
이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가족이 줄 수 있는 정서적 만족이나 정신적 유대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지금 한국에서는 매우 급속한 인구 변천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인구 변천의 첫 번째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이다. 2002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특정 사회의 모든 여성이 일생에 걸쳐서 낳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줄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모든 여성들이 결혼해서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17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거꾸로 인구감소를 염려하게 되었다. 만약에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0년을 전

후해서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혼과 자녀관의 변화

그러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혼 연령의 상승, 독신자의 증가, 그리고 결혼 후 첫아이를 낳을 때 까지의 기간 연장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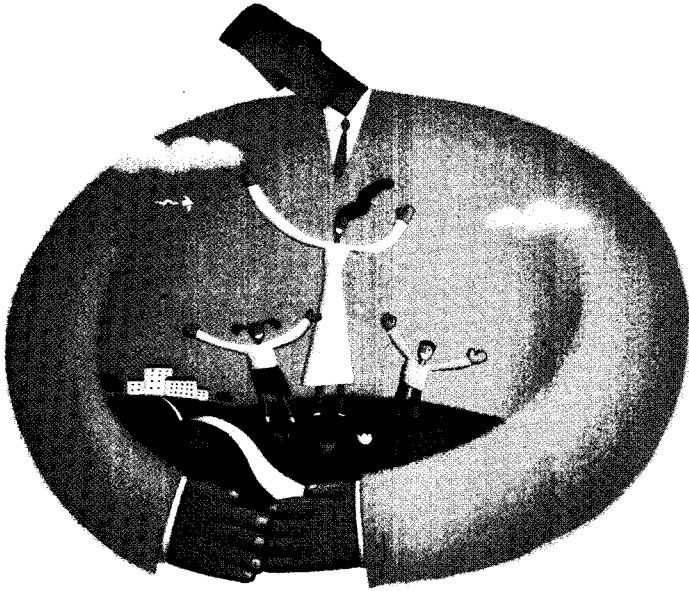
먼저 결혼연령의 상승을 보면 1970년의 경우 여자 25~29세 중 미혼자는 10%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40%로 증가하였다. 또 30~34세 중 미혼자는 1%였으나 2000년에는 11%나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루려는 욕구보다 개인적인 성취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응답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남자는 16.3%, 여자는 37.9%로 나타났다.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배우 부인의 비율이 1991년에는 8.5%였으나 2002년에는 44.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한



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미 서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미 고령화 사회

한국 인구변천의 두 번째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앞에서 설명한 출산율의 감소가 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급속한 고령화이다.

한 사회의 고령화의 정도는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UN은 한 사회의 노인 인구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그리고 그 비율이 14%가 되면 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7.1%로서 한국은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간다면 2019년경에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불과 19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를 기록하게 된다.

인구는 바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고 따라서 인구의 증감이나 그 특성이 바뀌면 곧바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청·장년층 노동인구에게 과중한 부양 부담이 되어 연금과 의료보험, 전반적인 조세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지

게 된다.

한마디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사회전반의 분위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족의 소중한 의미 깨우쳐야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가정과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가치관의 정립,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들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로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가족이 줄 수 있는 정서적 만족이나 정신적 유대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다. 가족이 건강해야 개인이 건강하게 되고, 개개인들이 건강해야 그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천의 큰 흐름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사회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